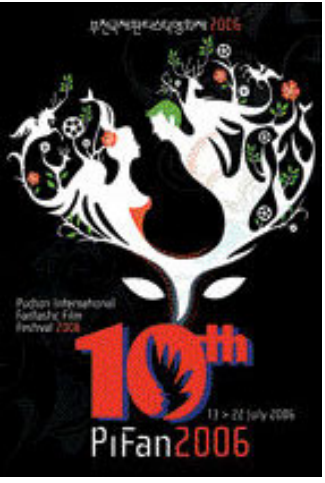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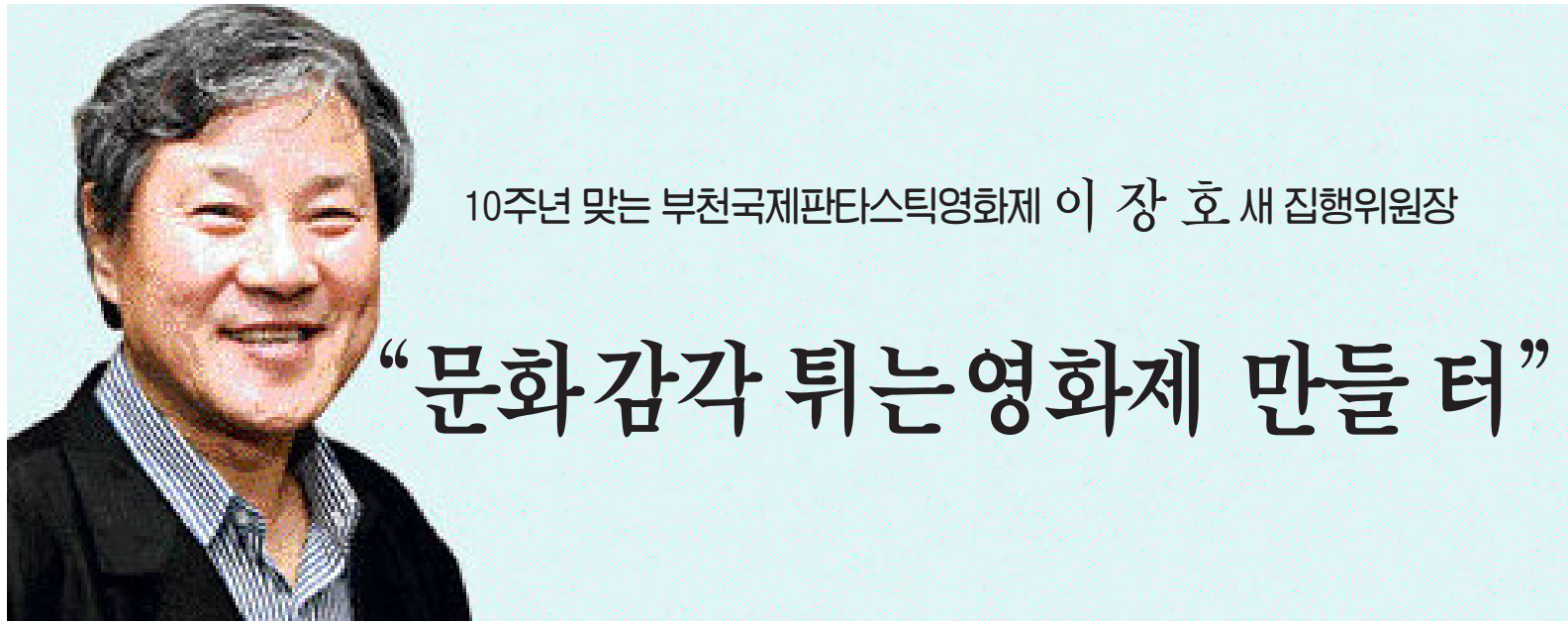
올해 부천영화제는?



잃어버린 관객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된다. 모두 35개국 251편(장편 150편, 단편 101편)의 영화들이 준비됐다. 특히 개막작이 눈에 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계수 감독의 뮤지컬 판타지 '삼거리 극장'. 폐막작은 홍흥 광호정 감독의 '이사벨라'다.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부문으로 상영되는 '마스터즈 오브 호러' 시리즈야말로 부천영화제의 정체성과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1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다리오 아르젠토, 미이케 다카시, 토비 후퍼, 존 카렌더 등 세계 호러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거장 감독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5개국 251편 상영 '호러' 시리즈 기획

특별전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고 신상옥 감독을 추모하기 위한 '판타스틱 신상옥' ▲이소룡이 등장하기 전, 중국은 물론 아시아 최고의 액션 스타로 군림했던 왕우의 작품 6편을 만날 수 있는 '왕우 특별전' ▲검열에 의해 원본이 훼손된 채 소개됐던 국내 작품 4편을 원상 그대로 다시 소개하는 '코리안 디렉터스 컷' ▲일본 컬트의 대명사 이시이 데루오의 작품을 모은 '컬트의 왕 이시이 데루오' ▲이탈리아 공포 영화를 시대별로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공포영화 특별전' 등 이름 가지 테마의 특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28일부터 http://ticket.PiFan.com을 통해 상영작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이와함께 배우 공형진과 정지영이 나서서 오는 13일 오후 7시 경기도 부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1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의 사회를 맡는다.



10주년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장 호 새 집행위원장

“문화감각 튼튼 영화제 만들 터”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부천영화제 안에서는 올해를 첫회 행사로 생각한다. 10회와 첫회, 거기에는 사연이 있다. 지난 해의 제9회 행사는 부천시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과의 심각한 내용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김홍준 전 집행위원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해촉됐고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대로 9회 행사와 똑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를 개최하며 맞섰다. 부천영화제는 거의 '끝장'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올해 새 집행위원장에 이장호 감독이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장호 집행위원장은 지난 해 부천시 측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영화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화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그 같은 그의 노력이 반영된 듯 올해 영화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화제로, 그래서 첫회 원년의 영화제로 새롭게 태어나는 분위기다. 다음은 이장호 감독과의 인터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극복된 건가.
-▲일단 영화제 조직이 크게 변화했다. 조직위원

회 내에 있던 이사회를 없앴다. 그리고 영화를 잘 아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꾸렸다. 이제 부천영화제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것이다. 부천시의 것이 아니다.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
-▲처음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워낙 내 성격이 낙천적이다. 하지만 부천영화제를 바라보는 영화인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냉담했다. 영화제에 등을 돌린 영화인들이 너무 많더라. 그 사람들 한명 한명 따로 만나면서 설득했다. 다시 영화제에 애정을 달라고, 거의 읍소를 하고 다녔다고 보면 된다.
-▲음소? 영화계 어른이?
-▲(웃음) 젊은 영화인들이 현 영화계의 '실세'들이다. 이들에게 읍소하는 건 당연하다. 영화인들이 우리의 노력을 좀 더 알고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1회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리고 다시 10회 집행위원장이었다. 기분이 남다른 것 같다.
-▲산부인과 의사 같은 기분이다. 아이를 받아서 부모에게 맡겼는데 10년 만에 아이가 아프다고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래서 수술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기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간절하지 않겠나. 영화제를 보름 앞둔 지금은 긴 터널 속에서 고심하다가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웃음)
-부천영화제가 원래는 상당히 대중적인 영화제였

다.
-▲맞다. 그랬다. 영화제를 시작할 때 처음 목적은 '당당한 오락 영화제'였다. 그리고 영화제로 보면 일종의 '마이너'한 쪽이었다. 보통 영화제는 오락보다 예술로 가니까. 하지만 세계 영화계가 점점 '판타스틱'하게 변했다. 이제는 판타스틱 영화들이 주류가 됐다. 판타스틱 영화들은 대중적 사랑은 물론, 예술적 작가주의자들이 다양하게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르가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부천영화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영화제인 셈이다.
-부천은 부산의 뒤를 이어 늘 2위 영화제라는 인상을 준다.
-▲사실 내 팔자가 그랬다. 난, 항상 2위였다. 영화 감독일 때도 김호선, 배창호 감독들에 밀려 항상 2진이었고.(웃음) 하지만 2위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를 보고 도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열려 있기도 하다. 난 그게 더 좋다.
-임기가 3년이다. 임기동안 집중할 현안이?
-▲사실 현안들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제를 영화제답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에서 진행되는 영화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적 감각'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문화적 감각이 앞서워지는 영화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해외 영화계 이슈

‘다빈치...’ 파문 할리우드 이번엔 ‘...다이아몬드’ 논란

아프리카 주민 비윤리적인 착취 고발 업계와 갈등

‘다빈치 코드’를 둘러싸고 기독교 교단과 충돌을 빚었던 미국 영화계가 이번에는 국제 다이아몬드 업계와 갈등에 빠지고 있다. 이유는 워너브러더스사가 현재 아프리카에서 제작중인 새 영화 ‘피의 다이아몬드’ 때문. 거대 다이아몬드 회사들의 아프리카 주민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착취와 유통과정을 정면에서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해 업계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미국 언론인 그레그 캠프의 저서 ‘다이아몬드 잔혹사’를 토대로 한 ‘피의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내전에 개입한 미국인 용병 주인공(레오나르 디카프리오)이 다이아몬드 밀매사건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이권이 걸린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현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유린과 서구 거대기업의 탐욕 실상을 체험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디카프리오와 제니퍼 코넬리가 남녀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에서 촬영이 시작됐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새영화

돌아온 슈퍼맨의 러브 스토리

슈퍼맨- 감독 브라이언 싱어 | 주연 브랜든 루스 케이트 보스워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엑스맨3'을 포기하고 뛰어들어 만든 영화. 원래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으려 했던 브렛 래트너는 대신 '엑스맨3' 연출을 맡아 감독 맞바꾸기로 화제를 모았다. 어쨌든 브라이언 싱어가 맡은 만큼 '슈퍼맨'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실제로 이번 슈퍼맨은 지구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사랑을 이루는 것에도 큰 노력을 보인다. 이번 영화는 일종의 슈퍼맨의 러브 스토리다. 그래서인지, 반응이 굉장하 뜨겁다.



사랑하게된 남자가 몇년전 죽은 사람

하프 라이트 감독 크래그 로젠버그 | 주연 데미 무어, 한스 매드슨

우연하고도 끔찍한 사고로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잃은 여주인공 레이첼이 실의를 달래고자 영국 해변가로 여행 겸 요양을 떠난다.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레이첼은 남자에게서 큰 위안을 느끼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남자라는 것이다. 적어도 마을 사람들이 얘기로는 그렇다. 이 때부터 남자의 존재 여부를 놓고 레이첼과 마을 사람들간에 숨막히는 대결이 벌어진다.



억울하게 죽은 여자 아랑 원귀로

아랑 감독 안상훈 | 주연 송윤아 이종욱 이종수

제목 '아랑'은 '아랑 설화'에서 따왔다. 억울하게 죽은 여자 아랑이 원귀가 돼 다시 세상에 나타나 피의 복수를 벌이고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영화 '아랑'에서 아랑과 같은 여인은 '민정'이다. 4건의 연쇄살인극이 벌어지고 살인 현장을 떠나는 민정이란 이름이 쓰이는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것. 민정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인가. 그렇다면 민정의 원혼을 풀어 어떤 살인극이 끝나는 얘기인가.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고향 송윤아가 신참 이종욱을 데리고 동봉서주한다.



Advertisement for 'Kangje Choi Center' (강제최센터)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Maca' (마카) health supplement with benefits and contact info.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or public service positions.

Advertisement for 'Mimogroup' (미용그룹) seeking talented managers.